

한국임상심리학회
2017
봄 학술대회

경험으로 배우는 임상심리학


2017 Spring Conference of the
Korean Clinical Psychology Association

일시 2017년 5월 11일(목)
~
5월 13일(토)

장소 창원컨벤션센터 CECO

주최  한국임상심리학회
Korean Clinical Psychology Association

후원  경남컨벤션뷰로
GNCVB CONVENTION OPERATOR & FACILITY SERVICE

 (사)한국심리학회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마음사랑
Total Psychological Service



초대의 말

2017년 봄 학술대회에 회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임상심리학회 봄 학술대회가 5월 11일(목)에서 13일(토)까지 경상남도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개최됩니다. 금번 학술대회는 바쁜 일상으로부터 잠시 벗어나 학문적 향연을 누리
고 봄날의 휴식도 만끽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최근 여러 영역에서 임상심리학자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고, 이러한 수요는 금년 6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과 함께 더욱 다양한 방향으로 확대되리라 예상됩니다. 회원대상 수요조사에서도 실제 활동 장면에서 마주하는 도전과 과제에 대한 우리 회원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2017년도 한국임상심리학회 봄 학술대회 주제는 ‘경험으로 배우는 임상심리학’으로 정하였고, 회원 여러분께서 임상 또는 연구 장면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실 때 실제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유용한 내용으로 학술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첫째 날에는 전통적으로 중요한 주제와 최신 동향을 반영하는 주제를 균형있게 기획하여 모두 10개의 워크숍을 준비하였고, 최대한 실용적인 정보와 경험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두 개의 연구방법론 워크숍은 회원 여러분께서 연구를 수행하실 때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을 중심으로 준비되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최신 인지행동치료, 사례 중심의 연구윤리, 노인의 인지기능, 재난, 도박 등 최근의 연구동향과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우리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주제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양한 직역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에서의 임상심리학자의 역할과 전망에 대한 심포지엄도 마련하였습니다. 인공지능시대의 심리치료, 융합연구의 사례에 대한 심포지엄은 임상심리학자의 새롭고 도전적인 역할에 대해 토론하는 기회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또한, 새로운 시도로 전문가 경력별 슈퍼비전의 실제에 대한 심포지엄을 꾸려보았습니다. 임상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전문가 회원 여러분들께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더하여 다양한 주제의 구연발표 및 포스터발표가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 관심과 활발한 토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셋째 날에는 윤리교육 및 제반 연수교육을 중심으로 우리 회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5월 11일(목) 오후에 우리 회원분들께서 따뜻한 봄날을 즐기실 수 있도록 투어 일정도 준비하였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나, 회원 여러분께 휴식과 친목 도모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술위원회를 비롯한 53대 임원진 모두는 금년 봄 학술대회가 회원 여러분의 임상적 그리고 학문적 열정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디 함께 하셔서 풍성한 학술의 향연과 친목 도모의 장을 맘껏 즐겨 주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5월, 창원에서 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임상심리학회 회장 박 중 규
학술부회장 정 경 미
학술이사 장 해 인 드림



목차

초대의 말	01
목차	02
일정표	03
1. 전체일정표	03
참가안내	05
1. 등록비안내	05
2. 등록안내	06
3. 취소 및 환불규정	07
4. 학술논문(포스터/구연)발표	08
5. 연수평점 안내	08
6. 유의사항 및 기타 안내	09
7. 기타서비스 안내	09
8. 행사장 안내	10
9. 배치도 안내	11
프로그램 소개	14
1. 1일차 워크숍 (5월 11일 목요일)	14
2. 2일차 심포지엄 (5월 12일 금요일)	19
3. 3일차 공동교육 (5월 13일 토요일)	28
기타 안내	31
1. 인근 숙박 업체	31
2. 인근 음식점	32
3. 관광안내	33
4. 후원	38
준비위원회	39



전체일정표

◆ 1일차 워크숍 (5월 11일 목요일)

5/11(목) 워크숍	A-Room	B-Room	C-Room	D-Room	E-Room	F-Room
	3층				6층	
	컨벤션홀 I	컨벤션홀 II	컨벤션홀 III	301+302	601+602	603+604
9:00~10:00	등록					
10:00~12:30	〈W1〉 조현병의 사회인지훈련	〈W2〉 심리치료 장면에서의 심리평가	〈W3〉 기질 및 성격검사(TCI)에 기반한 Anthropedia 웰빙 코칭 (well-being coaching) 프로그램 소개	〈W4〉 뉴로피드백의 임상활용: ADHD를 넘어서	〈연구방법워크숍1〉 논문 작성에 있어서 구조방정식 모형의 활용과 실제 (1차) (※ 선착순 100명)	〈연구방법워크숍2〉 PsychoPy를 활용한 심리학 실험 프로그래밍I (※ 선착순 50명, 연속강의)
12:30~13:30	점심시간					
13:30~16:00	〈W5〉 심리적 응급처치 (Psychological First Aid) 교육 어떻게 해야 하는가?	〈W6〉 대인관계치료의 이론과 실제	〈W7〉 치매 예방을 위한 통합적 기억훈련법	〈W8〉 회복지향의 질병관리 프로그램(IMR)	〈연구방법워크숍1〉 논문 작성에 있어서 구조방정식 모형의 활용과 실제 (2차) (※ 선착순 100명)	〈연구방법워크숍2〉 PsychoPy를 활용한 심리학 실험 프로그래밍II (※ 선착순 50명, 연속강의)

◆ 2일차 심포지엄 (5월 12일 금요일)

5/12(금) 심포지엄	A-Room	B-Room	C-Room	D-Room	E-Room	F-Room	G-Room
	3층				6층		
	컨벤션홀 I	컨벤션홀 II	컨벤션홀 III	301+302	601+602	603	604
9:00~10:00	등록 및 포스터 게재						
	개회사(09:50~10:00), 컨벤션홀 III						
10:00~12:00	〈S1〉 인지행동치료 의 최신동향	〈S2〉 재난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민간컨소시엄 의 활동 전략	〈S3〉 지역사회 정신보건 서비스에서의 임상심리학자의 역할과 전망				구연발표 I
12:00~13:15	점심시간						
13:15~15:15			〈S4〉 문화반영적 우울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 역기능 우울 척도를 중심으로	〈S5〉 노인의 인지기능 이해와 개입	〈S6〉 연구자를 위한 연구윤리의 실제 (※ 전문회원 윤리교육 이수 인정)	〈S7〉 신규전문가를 위한 슈퍼비전의 실제: 다양한 임상현장 중심으로 (※ 전문가 자격 취득 후 5년차 이하)	구연발표 II
15:30~17:30			〈S8〉 인공지능시대의 심리치료: 앱기반 심리개입 프로그램의 현재	〈S9〉 도박중독 회복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의 필요성	〈S10〉 융합연구와 임상심리학자 의 역할: 사례와 시사점	〈S11〉 숙련된 전문가를 위한 슈퍼비전의 실제 (※ 전문가 자격 취득 후 5년차 이상)	구연발표 III
15:00~18:00	대의원회 (창원컨벤션센터 CECO 605호)						
18:00~20:00	만찬 (창원컨벤션센터 CECO 컨벤션홀 I + II)						

※ 강의실 강의시간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3일차 공동교육 (5월 13일 토요일)

5/13(토) 공동교육 사례발표	A-Room	B-Room	C-Room	D-Room
	3층			
	컨벤션홀 I	컨벤션홀 II	컨벤션홀 III	301+302
08:30~09:00	등록			
09:00~10:50	〈E1〉 인지행동치료의 이론과 실제: CBT for ADHD Children & OCD	〈E2〉 아동기 주의력 결핍장애와 신경심리평가	〈E3〉 장애등급판정 기준 제대로 알고 심리평가 하기	〈사례회의 1〉 외출을 두려워하는 우울하고 무기력한 19세 여성
	〈E4〉 임상심리학자가 지켜야 할 윤리와 책임 (※ 전문회원 및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생 윤리교육 이수 인정)	〈E5〉 수련생을 위한 심리평가 및 보고서 작성법	〈E6〉 심리학자를 위한 의학강의	〈사례회의 2〉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으려 하는 사회불안장애/우울증 남성
11:00~12:50				

※ 강의실 강의시간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참가안내

학술대회 등록비

	구분	전문회원	정회원 / 준회원	비회원	학부생
사전등록 (1일권)	1일차-워크숍 (5/11, 목)	100,000원	70,000원	110,000원	50,000원
	2일차-심포지엄 (5/12, 금)	80,000원	60,000원	90,000원	40,000원
	3일차-공동교육, 사례회의 (5/13, 토)	50,000원	40,000원	60,000원	60,000원
사전등록 (할인권, 2일 이상)	1, 2일차 (5/11~12, 목~금)	180,000원 →150,000원	130,000원 →100,000원	200,000원 →160,000원	-
	2, 3일차 (5/12~13, 금~토)	130,000원 →100,000원	100,000원 →80,000원	150,000원 →110,000원	-
	1, 2, 3일차 (5/11~13, 목~토)	230,000원 →180,000원	170,000원 →130,000원	260,000원 →190,000원	-
현장등록	1일차-워크숍 (5/11, 목)	110,000원	80,000원	120,000원	60,000원
	2일차-심포지엄 (5/12, 금)	90,000원	70,000원	100,000원	50,000원
	3일차-공동교육, 사례회의 (5/13, 토)	60,000원	50,000원	70,000원	70,000원

※ 사전등록을 이용하시면 등록비가 할인되므로 <사전등록>을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사항

	종류	비용	일정&시간	장소
만찬 (2일차)	사전등록 (전문회원)	15,000원	5월 12일(금) 18:00 ~ 20:00	창원컨벤션센터 (CECO) 3층 컨벤션홀 I + II
	사전등록 (준/정회원)	10,000원		
	현장등록	45,000원		

- 만찬 진행 시간은 현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현장공지 및 안내문을 참고 바랍니다.
- 사전등록 신청 시, 만찬을 신청 해주신 분들만 할인이 적용됩니다.
- 만찬 현장 & 당일 등록 시 실비 55,000원을 지불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입장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만찬은 선택사항이나, 단독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학부생 할인 (학부생만 가능)

- 1) 한국임상심리학회 '게스트' 회원으로 가입 후 온라인 신청
([학술행사]-[사전등록 접수]-[2017년 봄 학술대회])
 - 2) 온라인 신청 이후 증빙서류(학생증)를 스캔하여 메일(kcpa-journal@kcp.or.kr)로 발송한 뒤,
할인금액으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 메일발송 시, 1) 제목: 학부생활인 신청, 2) 성명+생년월일 반드시 기재

현장등록

- 현장등록은 현금, 카드결제 모두 가능하며 "당일 결제"만 가능합니다. (양일 일괄 결제 불가)

등록 안내

사전등록 기간

2017년 4월 11일(화) 10:00 ~ 4월 23일(일) 24:00까지

등록안내

- 사전등록기간(~4/23, 일까지)에 등록비와 연회비가 모두 입금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2017년 4월 24일(월) 이후부터는 사전등록이 불가하오니, 기간 내 사전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일 이후에는 현장등록만 가능합니다.

사전등록 방법

- 한국임상심리학회 홈페이지 (<http://www.kcp.or.kr>)의 [학술행사]-[학술행사 사전등록]을 방문, [2017 봄 학술대회]를 클릭하여 온라인 신청을 진행합니다.
- 온라인 신청이 끝난 후, 입금계좌로 등록비를 입금합니다.
- ※ 사전등록기간에 <등록비 및 연회비 납부>가 확인 되지 않을 경우, 사전등록이 취소됩니다.

사전등록 확인

- 온라인신청과 무통장입금을 모두 마친 다음, 학회 홈페이지의 [학술행사]-[학술행사 등록조회]를 방문하여 등록비 지불상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금상태는 등록비 입금이 확인된 후 1주일 이내에 <입금완료>로 변경됩니다.
- ※ 입금 양식(성명+생년월일) 미 준수 시 입금 확인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

등록비 입금계좌

무통장 입금 : 기업은행 072-092242-01-014 (예금주 : 한국임상심리학회)

- 반드시 [신청인 성명+생년월일]으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ex: 홍길동 850101)
- 신청자와 입금자명이 다를 경우 사전등록 확인이 어려우므로 사무국 대표메일(kcpa@kcp.or.kr)로 내역을 기재하여 확인 요청을 바랍니다.

등록취소

- 사전등록 기간(4/11-4/23) 내에 등록비와 연회비가 완납되지 않을 경우, 등록이 취소됩니다.

등록일자 변경

- 사전등록 기간(4/11~4/23)에만 가능합니다.
- 학술대회 등록이 일차별로 진행되므로 사전등록 시 선택한 프로그램과 다르더라도, 자유로운 프로그램 수강이 가능합니다. (1일차 연구방법론 워크숍, 3일차 강의 제외)
- 1일차 연구방법론 워크숍 취소 및 3일차 강의변경을 원하실 경우에만 (ex. E1 <-> 사례회의) 4월 24일(월) 이전에 메일 (kcpa@kcp.or.kr)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 유선으로 신청 시, 누락될 가능성이 있어 메일로만 신청 받고 있습니다.

기타안내

- 이번 봄 학술대회에서는 수요확인을 위하여 사전접수 시 강의별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현장에서 자유롭게 강의 수강이 가능합니다.
- 1-2일차 연수평점표는 일차별로 1장, (단, <S6. 연구자를 위한 연구윤리의 실제> 강의를 수강하는 전문회원의 경우 2장 발급), 3일차 연수평점표는 강의별(총 8장)로 발급됩니다.
- 참가인원 파악을 위해 (교재, 중식 등) 가능한 사전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등록자는 강의실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연구방법 워크숍 강의

- 논문 작성에 있어서 구조방정식 모형의 활용과 실제
 - 강의 당 선착순 100명 한정
 - 1차(10시~12시 30분), 2차(13시 30분~16시)는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므로, 시간대 확인 후 한번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sychoPy를 활용한 심리학 실험 프로그래밍
 - 선착순 50명 한정
 - 1~2부 연속 강의 (10시~16시)

※ 강의신청방법: 온라인 사전등록 시 해당 강의 선택 / 현장 등록 시 강의 선택 (단, 사전등록 시 선착순 인원이 마감되면 추가로 현장등록 받지 않습니다.)

취소 및 환불 규정

등록취소 방법

사전등록 완료 이후 등록 취소 시 아래의 <환불 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학회 대표 메일 (kcpa@kcp.or.kr)로 발송해야 합니다.

<환불 신청 양식>

☐ 메일 제목 ✉ 환불신청 (성명)

- ① 성명 / 생년월일 / 학회 ID :
- ② 연락처 :
- ③ 취소 일자 : (ex: 양일취소, 5/11-1일차)
- ④ 결제 금액 :
- ⑤ 환불받을 계좌번호 / 은행명 / 예금주명 :

※ 모든 등록비 환불은 학술대회 종료 후, 환불예정일에 일괄 입금 될 예정입니다.

환불예정일

5월 26일(금)

취소 및 환불규정

사전등록 완료 이후 등록 취소 시, 환불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액 환불 : 2017.05.02.(화)까지 환불신청
- 반액 환불 : 2017.05.03.(수) ~ 2017.05.10.(수)까지 환불신청
- **환불 불가 : 2017.05.11.(목) 부터**

기관지원 환불

기관에서 등록비를 지원받는 회원분들께서는 먼저 본인 성명으로 사전등록과 등록비 입금을 마친 후, 환불기간 내에 아래의 <기관 지원 환불 신청 양식>으로 메일(kcpa@kcp.or.kr)을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지원 환불 신청 양식>

☐ 메일 제목 ✉ 기관 지원 환불신청 (성명)

- ① 성명 / 생년월일 / 학회 ID :
- ② 연락처 :
- ③ 결제 금액:
- ④ 환불받을 계좌번호 / 은행명 / 예금주명 :

※ 신청 메일에 '기관지원 환불 신청'이라는 내용 없는 경우, 일반 환불(등록취소)로 처리되오니 반드시 지정 양식으로 발송바랍니다.

- 기관지원 신청자는 현장등록대에서 명찰 수령 및 사전등록 비용으로 카드결제가 가능합니다.
- '기관지원 환불 신청' 후, 현장에서 명찰 수령 시 등록비 납부내역이 확인되면 환불예정일에 환불될 예정입니다.
- '기관지원 환불 신청' 후, 당일에 기관카드 결제내역 또는 현장등록 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환불이 불가합니다.
- 사전등록 및 기관지원 환불 신청을 하지 않고 카드결제를 하는 경우, 현장등록 비용으로 결제됩니다.

학술논문 (포스터/구연) 발표

포스터발표

- 포스터 규격 : A0사이즈(840mm*1200mm) 1장
- 게재 일시 : 5월 12일(금) 08:30-09:30
게재번호는 포스터발표 확정되신 분들께 별도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발표 장소 : 창원컨벤션센터 3층 로비
- 철거 시간 : 17:30-18:00
- ※ **게재 및 철거시간 엄수**, 철거 시간 이후에도 남아 있는 포스터는 전량 폐기합니다.
- ※ **학회에서 제공하는 양면테이프 및 마스킹테이프만 사용 가능**
(본인이 준비한 테이프를 사용하여 포스터 판넬이 훼손되는 경우, 전액 변상해야하므로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구연발표

- 발표 일시 : 5월 12일(금) 10:00~17:30
- 발표 장소 : 창원컨벤션센터 6층 604호
- ※ 자세한 내용은 시간표 및 프로그램 소개(27p)를 참고 바랍니다.

우수논문 시상식

- 시상일시 : 5월 12일(금) 18:00
- 시상장소 : 창원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 I + II (만찬장)
- ※ 수상자는 당일 오후 4시 이후, **개별적으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연수평점 안내

인정시간

-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생 포함),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생 대상
- 1일차 워크숍 : 5시간
 - 2일차 심포지엄 : 6시간
 - 3일차 연수회 및 공동교육 : 강의별로 실시간 인정

제출안내

- 강의 종료 후, **[학회용] 연수평점표**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연수평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각 강의실 앞 진행요원에게 제출)
- ※ [학회용] 연수평점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실제 참석하였더라도 평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사오니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회원 보수교육

- 명찰 수령 및 연수평점표 제출**을 통한 학술대회 참석이 확인되면 홈페이지 상에 자동 반영 됩니다.
(**[마이페이지]-[전문회원 보수교육]**에서 확인)
- 명단 정리 후 업데이트까지는 3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수련생 윤리교육 안내

-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생 윤리교육은 매년 봄 학술대회에서만 개설**됩니다. 3년간의 수련과정 중 윤리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수련완료심사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이점 유의하시어 **2017년 수련심사를 앞두고 계신 3년차 수련생들 중에 윤리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분들은 반드시** 이번 봄 학술대회 3일차 공동교육 E4. 윤리교육을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 ※ 2일차에 진행되는 <S6. 연구자를 위한 연구윤리의 실제>는 전문회원 윤리교육(보수교육)으로 인정되나,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생 윤리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강의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당일 대리인 참가로 인한 행사 진행 및 업무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참가하시는 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유의사항 및 기타 안내

자격증 수령

- 수령 일시 : 학술행회 기간 중 10:00~17:00
- 수령 장소 : 현장등록대
- 현장등록대에서 **학술행회 등록 확인 및 본인 확인** 후 수령 가능합니다. (※ 신분증 지참)

프로그램

수강 안내

- 각 프로그램은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습니다.
- 학술행회 등록자(사전/현장)는 당일 선착순으로 입장하므로, 좌석이 부족할 수 있으니 미리 입장 바랍니다.
- 강의 종료 후, [학회용] 연수평점표를 필히 제출하여야만 연수평점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각 강의실 앞 진행요원에게 제출)

상반기

수련등록신청자

2017년 상반기 임상심리전문가 신규 수련등록생은 수련등록 심사 후 회원구분이 변경될 경우 (비회원/승인대기자→정회원), 학술행회 등록비 차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 정회원 임시 승인되어 최종 인준될 경우는 해당 사항 없으므로, 본인의 현재 회원구분을 필히 확인 바랍니다.

강의내용 촬영

강의내용 촬영 및 녹취는 엄격히 금지합니다. 무단 촬영 및 녹취 시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 바랍니다.

사무국 운영 안내

- 5/10(수)~5/15(월)은 학술행회 개최 준비 및 마무리로 사무국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 사전등록 기간에는 통화량이 많이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문의사항은 홈페이지 게시판 Q&A 및 대표메일(kcpa@kcp.or.kr)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서비스 안내

공지사항 관련

본 브로셔에 공지되지 않은 사항들은 관례에 따릅니다.

자료집 및 학술 논문 초록집 다운 로드 안내

2017년 봄 학술행회 워크숍 및 심포지엄 자료집은 PDF형태로 온라인 출간됨에 따라, 한국임상심리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임상심리학회 홈페이지 [학술행사]-[자료집]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 비밀번호는 학술행회 전일(前日), 등록하신 분들께 문자로 발송드릴 예정입니다.

※ 워크숍 및 심포지엄 자료집은 책자형태로 발간되지 않습니다.

자료집 및 학술 논문 초록집 앱 서비스 안내

2017년 봄 학술행회 워크숍 및 심포지엄 자료집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안드로이드 : Google 스토어-‘한국임상심리학회’ 검색 후 다운로드

※ 아이폰 : 앱스토어-‘한국임상심리학회’ 검색 후 다운로드

공동교육 자료집

공동교육 자료집은 학술행회 종료 후 재고가 있을 경우 판매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학술행회 종료 이후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차 안내

종일권 5,000원

주차문의 : 055-212-1037

※ 사무국에서는 주차권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행사장 안내

일정 및 장소

일정 : 2017년 5월 11일(목) ~ 5월 13일(토)
장소 : 창원컨벤션센터 CECO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전화 : 055)212-1000

오시는 길



교통편

시내버스

일반	102, 103, 109, 113, 155, 212, 221, 506
좌석	751

* 창원역~CECO

<자가용>

- 창원대로(4.2km) → 원활창이대로(1.2km) → 원활원이대로(0.7km)
* 6.8km. 약 20분 소요

<택시>

- 일반택시 : 약 1만원

<간선버스 - 109, 102, 113번>

- 창원역(맞은편 PAT앞)에서탑승 → 창원컨벤션센터 정류장 하차
* 버스 요금 : 편도 1,300원/1인, 약 30분 소요 (7km)

* 창원중앙역~CECO

<자가용>

- 상남로(0.5km) → 원활창이대로(1.7km) → 서행반지로(0.8km)
* 5.3km, 약 16분 소요

<택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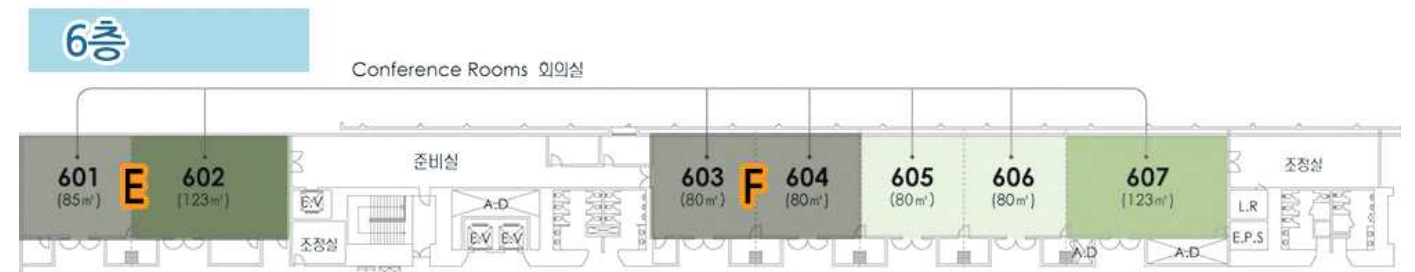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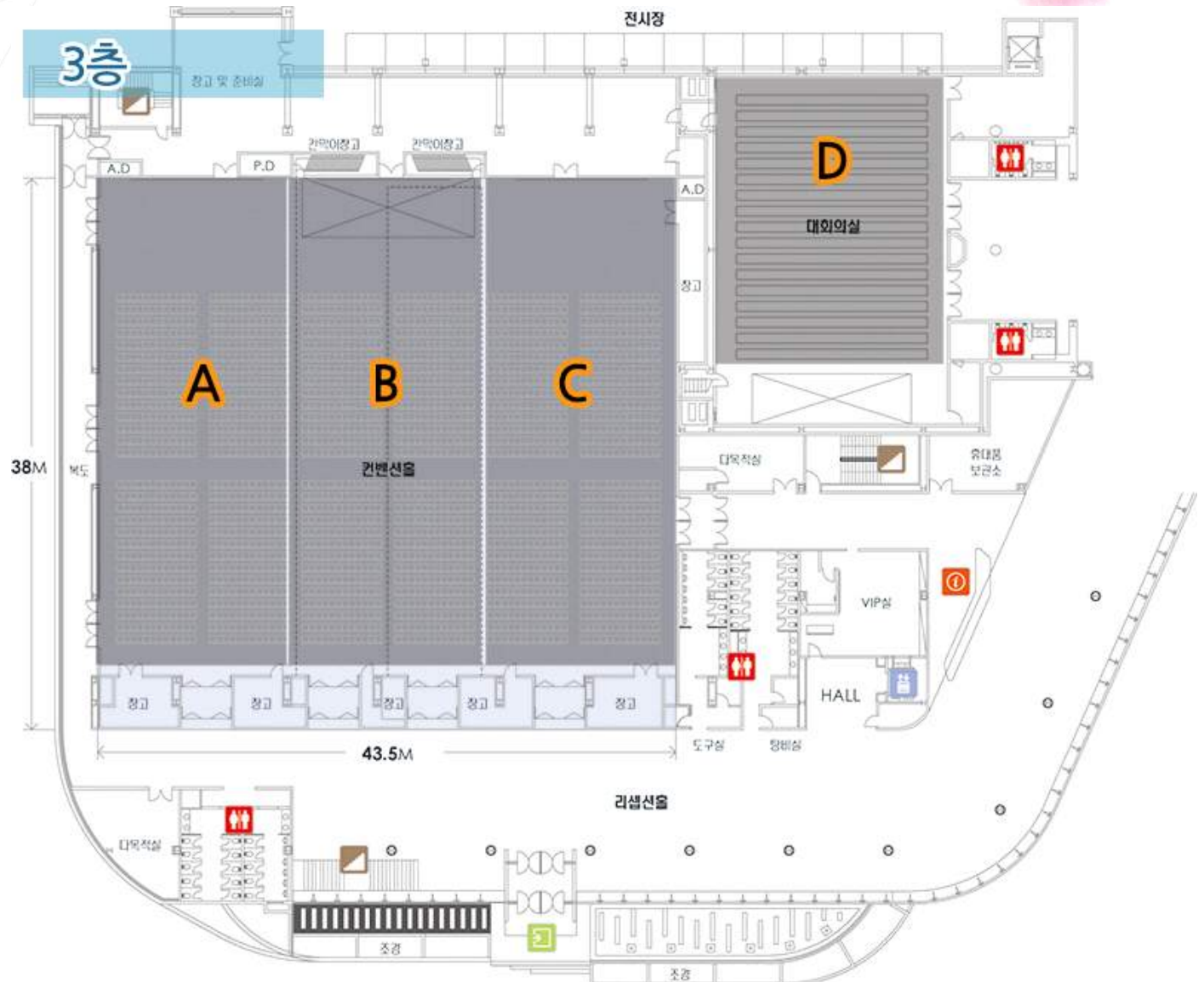
- 일반택시 : 약 8천원

<지선/간선버스 - 211, 210>

- 창원중앙역 정류장에서 탑승 → 반지사거리 정류장 하차 → 도보500m 이동
* 버스 요금 : 편도 1,300원/1인, 약 30분 소요 (6km)

배치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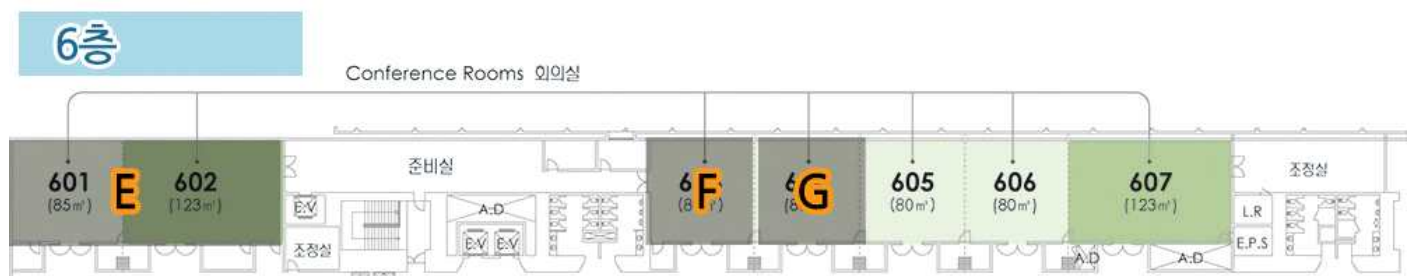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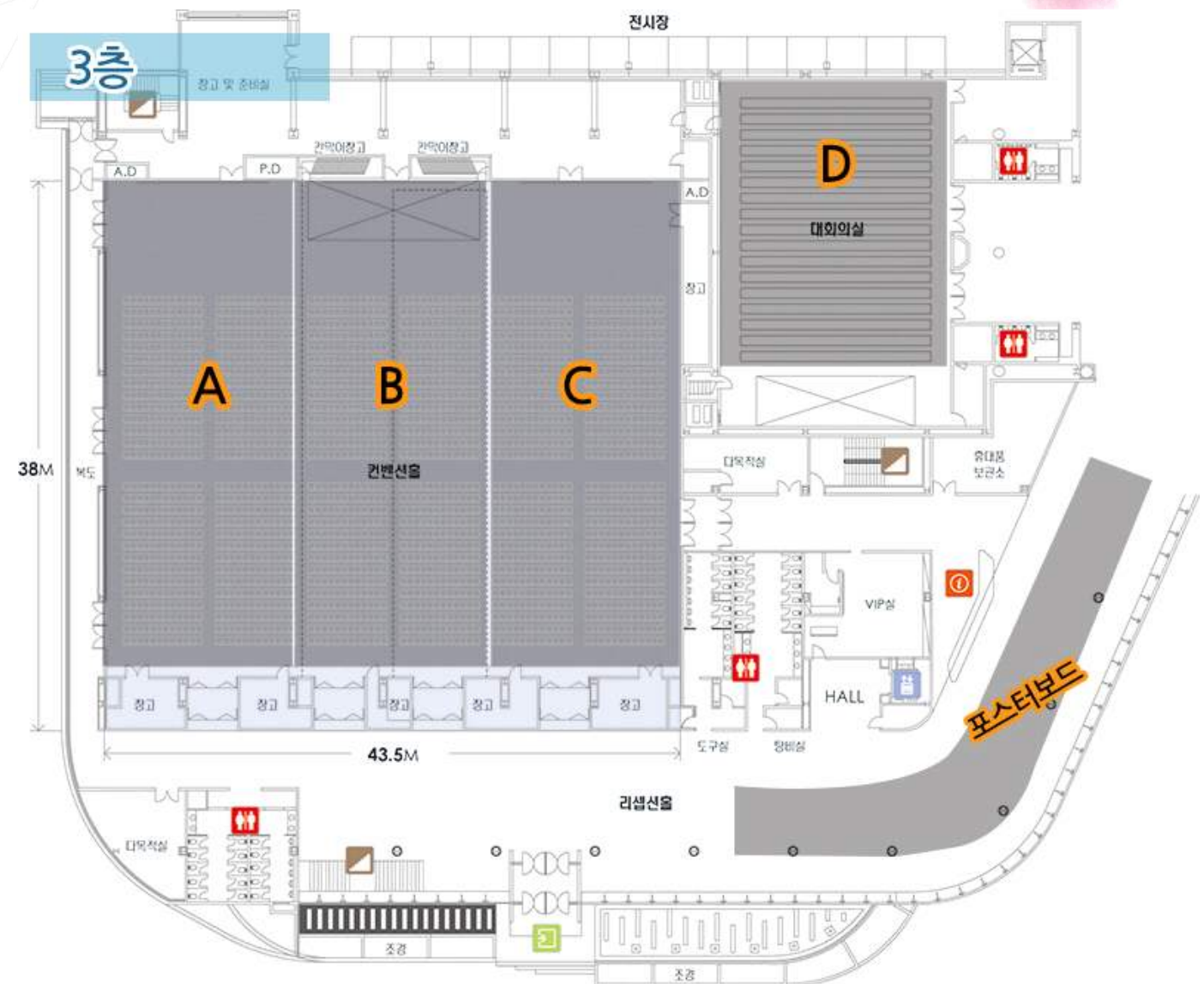
* 워크숍 (5월 11일, 목)



※ 강의실 강의시간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배치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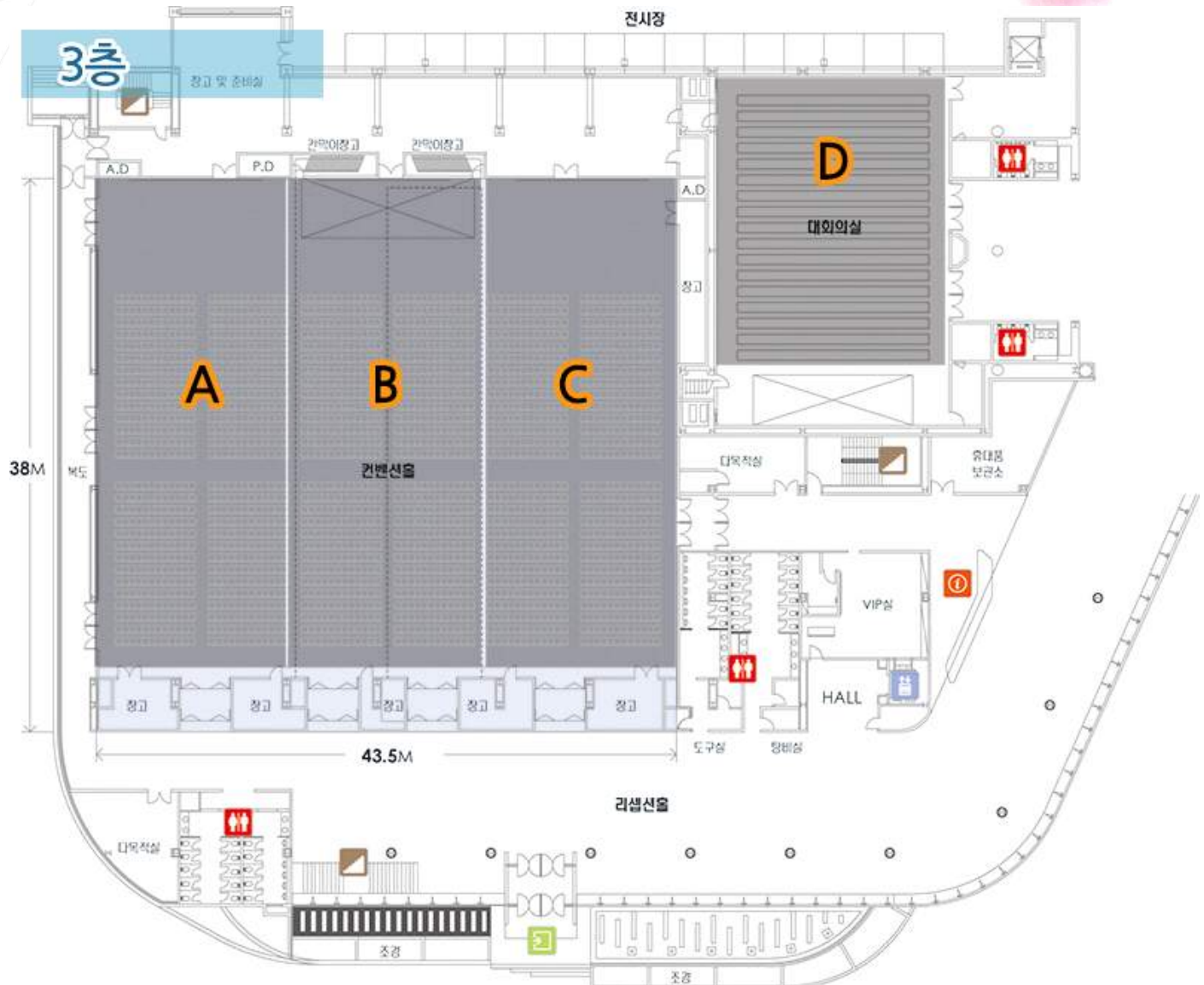
* 심포지엄 및 특강 (5월 12일, 금)



※ 강의실 강의시간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배치도 안내

* 공동교육 (5월 13일, 토)



※ 강의실 강의시간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소개

◆ 1일차 워크숍 (5월 11일 목요일)

시간	강의실	내용
10:00 ~ 12:30	A-Room	제목 W1. 조현병의 사회인지훈련
		강사 이원혜 (국립정신건강센터 심리건강과) / 최기홍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rt 1: 사회인지란? 사회인지재활이란? (이원혜, 국립정신건강센터 심리건강과) • Part 2: 최신 사회인지 훈련 소개 및 실습 (최기홍,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p>사회인지는 정서인식, 공감, 마음이론, 귀인과 같은 인지기능을 일컬으며, 대인관계 및 사회기능 수준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조현병을 포함한 중증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사회인지 기능에 손상이 있거나 왜곡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이로 인해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되었다. 더욱 중요한 점은 사회인지의 손상이나 왜곡이 중증정신질환 발병 전에도 나타날 뿐 아니라, 고위험 군에게도 나타난다고 보고되어 사회인지 훈련이 치료뿐 아니라 예방에도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p> <p>지난 20년 동안 사회인지를 향상하는데 특화된 훈련이 국내외에서 개발이 되어 왔으며, 긍정적인 훈련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 본 워크숍에서는 1) 사회인지를 소개하며, 2) 사회인지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3) 최신의 사회인지 훈련 방법을 소개 및 시연을 제공할 것이다.</p> <p>또한 지역사회 정신건강 기관 혹은 병원에서 중증정신질환이 있거나 혹은 고위험 군에게 개인 혹은 집단으로 사회인지 훈련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교육이 될 것이다.</p>
	B-Room	제목 W2. 심리치료 장면에서의 심리평가
		강사 우상우 (푸른숲심리상담센터)
		토론 최성진 (부산가톨릭의료원 메리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p>전통적인 심리평가 수행의 목적은 환자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분류와 진단이라 할 수 있다. 현대 심리평가 수행은 분류나 진단을 넘어 심리치료 장면에서 내담자들을 이해하는 수행으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심리치료 장면에서는 개별특수적 접근을 지향하는 임상심리학의 관점을 바탕으로 과학적인 심리평가의 원리와 기제를 활용하여 내담자 개인의 적응과 부적응을 이해하는 것에 중요성을 두고 있다. 본 워크숍에서는 첫째, 심리치료 장면에서 심리평가 수행의 의미를 탐색해 볼 것이며 둘째, 심리평가 수행 모형을 제시하고 각 단계마다 필요한 평가자의 자질 및 능력을 설명하고자 하며 셋째, MMPI-2와 로르샤하잉크반점검사를 활용하여 '심리치료 장면에서의 심리평가 수행'을 소개하고자 한다.</p>
	C-Room	제목 W3. 기질 및 성격검사(TCI)에 기반한 Anthropedia 웰빙 코칭(well-being coaching) 프로그램 소개
		강사 이수진 (경일대학교 심리치료학과)
		<p>Dr. Cloninger의 기질 및 성격 검사(TCI: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는 단순히 심리검사 도구로서 뿐만 아니라 TCI를 기반으로 한 Anthropedia well-being coaching 프로그램으로 발전되어 미국, 프랑스, 스웨덴 등에서 실시되고 있다. 심리치료와 상담의 교육 및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웰빙 코칭 프로그램을 본 워크숍을 통하여 소개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p>

◆ 1일차 워크숍 (5월 11일 목요일)

시간	강의실	내용
10:00 ~ 12:30	C-Room	<p>1. Interpretation of TCI : 기질 및 성격검사(TCI: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의 해석을 통해 심리 검사 도구에서 심신통합적인 웰빙 코칭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게 된 배경을 살펴본다.</p> <p>2. Introduction of well-being coach program : TCI에 기반한 웰빙 코칭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표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웰빙 코칭 프로그램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소개한다.</p> <p>3. Beyond the well-being coach program : 심리사회적 측면뿐만 아니라 신체적(body), 정신적(spirit) 측면을 포함하는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 심신의 조화로운 well-being이 무엇인지 이해해 본다.</p> <p>본 워크숍은 TCI를 실시해 보았으나 단순한 심리검사 해석 이상의 의미를 고민해 본 회원들을 위해 준비한 자리로, 워크숍 신청 시 참고를 부탁드립니다.</p>
	D-Room	<p>제목 W4. 뉴로피드백의 임상활용: ADHD를 넘어서</p> <p>강사 최승원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p> <p>흔히 뉴로피드백은 주의력장애 아동을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대안적 치료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21세기 동안 축적된 임상연구들로 뉴로피드백의 영역은 확장되었다. 본 워크숍은 뉴로피드백에 관심이 있지만 주의력장애 이외의 내담자들에게 적용하고 싶은 경우, 뉴로피드백 기기를 가지고 있지만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뉴로피드백을 도입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실용적인 시간이 될 것이다.</p> <p>이 시간에는 그동안 덕성여자대학교 임상심리학연구실에서 새롭게 개발한 뉴로피드백 프로토콜들을 소개하고, 이들의 이론적 배경 및 구체적 활용방법을 소개할 것이다. 주요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EEG와 HRV를 동시에 활용하는 ADHD 훈련 2) 사격, 양궁 등 단기 집중력이 필요한 선수들을 위한 good shot 프로토콜 3) 애착장애 환자들을 위한 알파파 비대칭 훈련 4) 경도 외상성 환자들을 위한 두뇌재활 훈련 5) 자폐스펙트럼장애 환자들의 인지장애 개선을 위한 훈련 6) 음악 연주자의 최적수행을 위한 뉴로피드백 훈련 7) 이명증상 개선을 위한 프로토콜 <p>강의는 각 프로토콜의 이론적 배경, 프로그램의 구성, 함께 시행할 심리치료, 효과 측정 및 평가, 동영상을 통한 훈련의 실제로 구성된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해당 프로토콜의 구매 및 교육을 요청할 경우 본 연구실에서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p>

◆ 1일차 워크숍 (5월 11일 목요일)

시간	강의실	내용
13:30 ~ 16:00	A-Room	제목 W5. 심리적 응급처치(Psychological First Aid) 교육 어떻게 해야 하나?
		강사 최윤경 (계명대학교 심리학과) / 윤혜영 (계명대학교 심리학과)
		소개 재난정신건강 분야에서 적절한 심리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재난의 본질과 영향뿐 아니라 전체 사회·문화적 맥락과 정책, 응급 관리, 인도주의적 지원, 공조와 협력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재난현장에서 적절한 심리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임상심리학자의 훈련 모델을 확장시킬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워크숍에서는 급성기 재난정신건강 분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심리적 응급처치(Psychological First Aid, National Child Traumatic Stress Network and National Center for PTSD, 2006)를 보다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이론 및 실습 강의의 팁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론 교육 강의에서 강조해야 할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실습 교육에서 주의해 할 사안, 관찰해야 할 행동 체크리스트를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정신건강전문인력 이외에 일반인이나 교사와 같이 교육 대상이 달라질 경우 심리적 응급처치 교육에서 어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해당 교육 자료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기술사업단의 지원으로 제작되었다. 보다 효과적인 워크숍 진행을 위하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및 임상심리전문가의 신청을 희망한다.
		제목 W6. 대인관계치료의 이론과 실제
	B-Room	강사 송후림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명지병원)
		소개 대인관계치료(Interpersonal Psychotherapy, IPT)는 각종 사회적 관계의 변화로 인해 파생되는 심리적 고통을 해결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치료법이다. 특히 우울증 치료에 있어 약물치료와 인지행동치료만큼이나 그 효용성이 입증되어 왔으나 국내에서는 널리 보급되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 2013년과 2014년도에 우울증임상연구센터 주관으로 International Society for Interpersonal Psychotherapy의 회장인 Scott Stuart 교수(University of Iowa)를 초청하여 총 16시간, 2일 과정의 대인관계치료 기초과정 워크숍(Level A certification training course)을 진행한 바 있는데, 대인관계치료의 확산을 위해 이를 2시간 30분에 압축하여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 1일차 워크숍 (5월 11일 목요일)

시간	강의실	내용
13:30 ~ 16:00	C-Room	제목 W7. 치매 예방을 위한 통합적 기억훈련법
		강사 최성진 (부산가톨릭의료원 메리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개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치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임상심리학에서도 신경심리평가와 치료적 개입에 대한 요구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의 기억훈련법이 인지적 요소에 한정된 개입이었다면, 본 워크숍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방법은 기억에 대한 정보처리적 이해를 바탕으로 정서 및 인지행동치료적인 접근을 통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이에 본 워크숍을 통해 치매 예방을 위한 통합적인 기억 훈련법을 소개하고 임상심리학자들이 임상장면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D-Room	제목 W8. 회복지향의 질병관리 프로그램 (IMR: Illness Management & Recovery)
		강사 김소형 (국립나주병원) / 신은식 (국립나주병원)
		토론 홍창희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소개 오늘날, 회복(Recovery)은 정신재활의 핵심이 되고 있다(Parkas, 2012). 조현병이나 양극성장애 및 주요우울장애 등을 지닌 정신과 환자에게 회복이란 무엇인가? 정신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증상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일상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변화의 과정으로서 회복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이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작되었다(National Implementing Evidence-Based Practices Project, 2002). 그 결과, 환자들의 회복을 향한 증상관리와 재발예방을 돕는 표준화된 패키지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며 이것이 회복지향 질병관리(Illness management and recovery: IMR) 프로그램이다(SAMSA, 2006;2009, 하나의학사, 2015). 본 워크숍은 회복에 관한 개념에 관해 살펴보고, 회복지향 케어 시스템인 회복지향 질병관리(IMR)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와 함께 관련 연구들을 리뷰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병원 및 지역사회 정신건강기관에서 회복지향적 질병관리 프로그램인 IMR을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 1일차 워크숍 (5월 11일 목요일) : 연구방법워크숍

시간	강의실	내용
1부: 10:00 ~ 12:30	F-Room	제목 연구방법워크숍1. 논문 작성에 있어서 구조방정식 모형의 활용과 실제 강사 조영일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p>※ 해당강의는 수강인원을 100명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1차와 2차가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등록안내(6p)를 참고 바랍니다.</p> <p>최근 임상심리와 관련된 연구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연구 문제(예, 척도의 타당화, 다문화 비교, 매개효과 검증, 조절효과 검증 등)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들이 만족되어야 하고, 이러한 가정들이 만족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구 문제를 검증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오류(errors)들이 발생 할 수 있다. 또한,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추정된 추정 값과 오차들의 해석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발표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의 활용에 있어서 점검해야 하는 가정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다양한 연구문제에 기초한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추정된 결과물을 해석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자들이 자주 저지르는 오류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p>
2부: 13:30 ~ 16:00	G-Room	제목 연구방법워크숍2. PsychoPy를 활용한 심리학 실험 프로그래밍 I-II 강사 백종수 (연세대학교 글로벌융합기술원)
		<p>※ 해당강의는 수강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1~2부 연속강의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등록안내(6p)를 참고 바랍니다.</p> <p>※ 원활한 강의 진행을 위해 PsychoPy 프로그램이 설치된 노트북을 지참하시고 참석하시길 당부 드립니다.</p> <p>심리학의 여러 분야에서 실험을 통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심리학 실험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습득해야 하는데, 이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 그리고 금전적 비용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와 도구가 개발되었고, 특히 최근 개발된 PsychoPy라는 도구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p> <p>PsychoPy는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통해 실험 프로그램 작성하기 때문에, 배우기 쉽고 복잡한 설계의 실험 프로그램도 빠르게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PsychoPy는 무료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학생, 연구자, 학과에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어, 기존 프로그래밍 도구들의 훌륭한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본 워크숍에서는, 프로그래밍에 관심은 있지만, 경험이 전혀 없거나 많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실험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PsychoPy의 사용법을 소개하고, 고전적인 심리학 실험 연구들을 직접 프로그래밍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p>

◆ 2일차 심포지엄 (5월 12일 금요일)

시간	강의실	내용
10:00 ~ 12:00	A-Room	제목 S1. 인지행동치료의 최신동향
		좌장 정애자 (전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정신건강의학과)
		발표 이종선 (강원대학교 심리학과) / 최현정 (트라우마치유센터 사람마음) 최기홍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토론 김정모 (영남대학교 심리학과) / 윤혜영 (계명대학교 심리학과)
		소개 1. 컴퓨터 기반 인지편향수정 프로그램-인지치료의 변화 메커니즘 (이종선, 강원대학교 심리학과) : 우울과 불안에 대한 인지치료의 최신동향으로 치료의 매개 기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치료의 변화기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기반 인지신경과학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강의에서는 컴퓨터로 제시되는 실험-기반 인지편향 수정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인지치료의 매개 가설과 top-down & bottom-up 관련 치료 메커니즘을 인지 및 신경과학 연구 결과들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2. 트라우마 심리치료에서 변증법 행동치료 적용 (최현정, 트라우마치유센터 사람마음) : 변증법행동치료(Dialectical Behavior Therapy, DBT)는 인지행동치료와 변증법의 원리에 따르는 증거기반 치료 체계이다. DBT는 주의, 인지, 행동, 정서 및 관계 조절의 문제를 완화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단계별 치료 과정을 포함하고 있어 복합 외상후 증후군 치료에 적용했을 때 이점이 많다. 이 발표는 복합 외상후 증후군을 다룰 때 적용할 수 있는 변증법행동치료의 원리, 전략, 체계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3. 지역사회 정신건강 영역에서 행동활성화 치료의 적용과 효과 (최기홍,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 본 강의에서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우울 혹은 조현 음성증상을 경험하는 내담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근거-기반치료의 하나인 행동활성화를 소개한다. 또한 행동활성화의 핵심이론과 행동활성화 매뉴얼에 대해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행동활성화 예비연구 및 무선헌당연구를 통해 얻은 효과검증 결과를 소개함.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임상심리학자들이 행동활성화를 활용할 방안과 앞으로의 연구과제에 대해 논의함.
	B-Room	제목 S2. 재난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민간컨소시엄의 활동 전략
		사회 류승아 (경남대학교 심리학과)
		발표 류승아 (경남대학교 심리학과) / 최윤경 (계명대학교 심리학과) 유성은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토론 장은진 (침례신학대학교 상담심리학과) / 하정희 (한양사이버대학교) 조용래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소개 재난 현장에서의 정신건강지원은 매우 중요하나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그 체계가 분명히 정의되지 않은 상태이다. 공적체계의 경우 국민안전처와 보건복지부, 지역에서는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와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이원화된 거버넌스로 운영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초기 재난 현장에 민간이 참여하는 방식도 구체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대형 재난인 경우 다양한 민간자원이 난립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심포지엄에서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는 재난정신건강지원 서비스 모형개발 과정에서 일차 도출된 민간컨소시엄 프로토콜과 관련한 합리적인 재난정신건강서비스 제공체계 구축과 훈련모델, 그리고 실질적인 운영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 2일차 심포지엄 (5월 12일 금요일)

시간	강의실	내용
10:00 ~ 12:00	B-Room	소개 1. 국내 대형 재난에서의 재난 피해자에 대한 공적 서비스와 민간참여 현황 및 민간컨소시엄 프로토콜 2. 재난정신건강인력의 핵심역량강화를 위한 훈련모델 3. 재난위기 대응팀 운영 및 훈련을 위한 고찰
		제목 S3.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에서의 임상심리학자의 역할과 전망
		사회 김명식 (한국정신보건전문요원협회장, 전주대학교 심리학과) 홍선미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박상규 (꽃동네대학교)
	C-Room	발표 배현석 (참누리정신건강센터장) / 이수정 (경남대학교 간호학과) 박미옥 (한국사회복지시설협회 부회장, 아미정신건강센터)
		토론 김한규 (다함정신건강센터)
		1. 변화하는 정신보건정책과 법 (홍선미,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보건의료적 관리방식으로 설계된 우리나라의 국가정신보건체계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이나 제도, 재정지원 방식 및 서비스체계 등의 변화를 동반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인권증진에 기여하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6년에 정신보건법을 전면 개정하여 만들어진『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법 개정을 계기로 현실화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이지 않다. 정신장애인의 정상화된 생활을 보장하는 지역사회정신보건의 실현가능성과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복귀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환경의 변화가능성을 살펴보고, 실질적인 동력이 되는 정부의 정신보건정책 방향과 관리책임, 정신보건인프라의 확충과 지역사회정신보건서비스의 접근성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소개 2. 중독의 홍수 속에서 임상심리전문가의 역할 (박상규, 꽃동네대학교) : 현대 우리사회는 알코올이나 마약 등의 물질중독뿐만 아니라 도박중독, 스마트 폰 중독, 인터넷 중독 등 행동중독의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나 도박중독을 비롯한 다양한 중독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중독은 생물-심리-사회-영적 요인이 통합되어 있는 문제이며 삶의 태도문제이다. 그러므로 중독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는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하며, 네트워크를 잘 형성해야 한다. 중독은 가정이나 우리 사회의 특성과도 관련되어 있어 전문가는 가족이나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임상심리전문가는 중독자에 대한 평가와 치료, 연구 등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는 지역사회에서 중독자를 위한 사회기술훈련, 가족교육, 직업재활, 치료공동체, 자조 모임, 행정관리, 영적 재활 등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보다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따라서 향후 중독분야에서 임상심리전문가들의 더 많은 참여와 활동이 기대된다.

◆ 2일차 심포지엄 (5월 12일 금요일)

시간	강의실	내용
10:00 ~ 12:00	C-Room	<p>3. 정신임상심리사와 지역사회 (배헌석, 참누리정신건강센터장) : 최근들어 지역사회 정신보건 영역에서 임상심리사의 역할이 많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임상심리사의 수는 매우 적다. 지역사회는 만성정신질환자관련 재활서비스, 중독관련 서비스, 아동·청소년관련 서비스, 노인관련 서비스, 법·군조직관련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임상심리사의 역할을 필요로 하고 기대하고 있다. 여기서는 지역사회에서의 임상심리사의 역할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한다.</p> <p>4. 정신보건간호사와 지역사회, 임상심리사의 역할 (이수정, 경남대학교 간호학과) : 정신보건간호사의 눈으로 보는 지역사회 정신보건 현장 내 임상심리학자의 역할을 살펴보고, 서로의 역할을 이해하고 협업할 수 있는 내용을 고찰해보고자 한다.</p> <p>5. 정신보건사회복지사와 지역사회 (박미옥, 한국사회복지시설협회 부회장, 아미정신건강센터) : 지역사회 정신보건현장(사회복지시설 중심) 이야기와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역할, 협력자로서의 임상심리사에게 기대하는 것에 관해 논의한다.</p>
	C-Room	<p>제목 S4. 문화반영적 우울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역기능우울척도를 중심으로</p> <p>사회 채정민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p> <p>발표 김종남 (서울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과) / 채정민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서동기 (한림대학교 심리학과)</p> <p>토론 조용래 (한림대학교 심리학과)</p> <p>소개 한국문화가 반영된 우울척도의 개발과정과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예비검사 분석 이후 진행된 본검사를 중심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준임상 우울 이상의 역기능 우울을 측정하기 위한 역기능 연구용 척도와 현장용 척도의 개발과정과 결과, 일반인들이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일상우울을 측정하기 위한 일상우울 연구용 척도와 현장용 척도의 개발과정과 결과, 활용방안이 그 내용이 될 것이다. 구체적인 발표 내용은 역기능 우울 본검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 연구용 척도와 현장용 척도, 일상우울 본검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 연구용 척도와 현장용 척도, 기준점수 설정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의 결과 및 현장 타당화를 위한 ROC 곡선 분석, CES-D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다.</p>
13:15 ~ 15:15	C-Room	<p>제목 S5. 노인의 인지기능 이해와 개입</p> <p>사회 심은정 (부산대학교 심리학과)</p> <p>발표 이강희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노수림 (충남대학교 심리학과)</p> <p>토론 한경훈 (부산대학교 스포츠과학부)</p>
	D-Room	<p>소개 1. Aging Brain and Cognition (이강희,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가며 나타나는 인지기능의 감퇴나 신체적 약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65세 이상의 고령인구의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시점에서 노화에 따른 인지적/뇌기능적 변화의 현상과 원인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지적 감퇴에 대한 빠르고 정확한 진단과 예방을 위한 개입의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의 인지기능과 뇌기능의 변화, 그리고 치매의 조기진단을 위한 노력에 대하여 임상신경과학적 자료를 기반으로 소개하고 기능적 회복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p>

◆ 2일차 심포지엄 (5월 12일 금요일)

시간	강의실	내용
13:15 ~ 15:15	E-Room	제목 S6. 연구자를 위한 연구윤리의 실제
		사회 정경미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발표 박형인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 유성은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최영은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토론 정경미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 황순택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 해당 심포지엄은 전문회원 보수교육의 윤리교육으로 인정되며, 수련생 윤리교육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Room	소개 1. 연구자를 위한 생명윤리의 실제 (박형인,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 인간대상연구를 위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심의 과정을 설명하고, 연구자가 IRB 심의 자료를 제출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소개하고자 한다.
		2. 연구윤리와 출판윤리 (유성은,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 본 발표에서는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하고 과학저널에 논문을 출판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저자의 입장과 출판인의 입장에서 고찰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이를 위해 외국의 사례와 본 학회 학술지 출판과정에서 있었던 윤리적 위반사례 및 운영지침을 소개하고 향후 방향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3. 인간 대상 연구 계획 및 실행에서 고려할 생명 윤리 (최영은,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 2012년 생명윤리법이 개정되고 시행이 확대되면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사회과학 연구에서 인간의 존엄성 존중, 개인정보 보호, 공정성 등의 원칙을 담고 있는 생명윤리의 고려와 준수가 중요한 연구의 한 과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본 발표에서는 인간 대상 연구를 계획하고 실행, 결과를 보고하는 전 과정에서 생명윤리의 어떤 차원들을 고려하여 연구 설계와 실행에 반영하여야 하는 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제목 S7. 신규 전문가를 위한 슈퍼비전의 실제: 다양한 임상현장 중심으로 (전문가 자격 취득 후 5년차 이하)
	F-Room	발표 강순아 (전북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도진아 (단국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토론 성태훈 (지우심리상담센터) / 서수연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 해당 심포지엄은 수강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전문가 자격 취득 이후 5년차 이하 분들을 대상으로 개설되었습니다. 요건이 맞지 않는 회원분께서 신청하신 경우 자동으로 강의가 변경 될 예정입니다.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소개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수련생 및 학생들에게 임상슈퍼비전을 제공하면서 다양한 현장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해 공유하고 토론하는 시간이다. 전반적으로 다루어질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1) 다양한 슈퍼비전 모델과 형식, (2) 수련생과의 관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방법 (3) 교육과 수익의 균형 (4) 외부 스트레스 (상부의 지시, 업무 수익성, 환자의 비난 등)와 수련생 사이에서의 버퍼 역할, 그리고 (5) 직접 관찰하거나 교육 받지 않은 내용에 대한 지도의 타당성과 윤리성이다. 임상심리대학원, 심리상담센터, 그리고 대학병원 다양한 임상 현장에서 대면하는 이슈들에 대해 토론할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F-Room	1. 병원장면에서의 임상슈퍼비전 I (강순아, 전북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2. 병원장면에서의 임상슈퍼비전 II (도진아, 단국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3. 심리상담센터에서의 임상슈퍼비전 (성태훈, 지우심리상담센터)
		4. 대학원에서의 임상슈퍼비전 (서수연,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 2일차 심포지엄 (5월 12일 금요일)

시간	강의실	내용
15:30 ~ 17:30	C-Room	제목 S8. 인공지능시대의 심리치료: 앱기반 심리개입 프로그램의 현재
		사회 최승원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최승원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 정경미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발표 김향숙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 허지원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조철현 (고려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토론 최진영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긴 이래 언론은 하루가 다르게 인공지능이 인간의 많은 업무를 대체할 것이라고 말한다. 심리치료 전문가들에게서도 이런 우려는 예외가 아니다. 도저히 기계가 대체할 수 없다는 낙관론과 결국은 시간의 문제라는 비관론이 공존한다.
		모바일 앱에 대한 심리학계의 반응도 이와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이 기술의 발전이 정확히 어떤 방향을 지향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며, 막연한 부정적 태도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 분야를 연구하는 이들은 말하고자 한다. 이것은 인간의 업무를 대체하는 무인 생산설비가 아니라는 점이다. 모바일 앱은 심리학자들에게 새로운 심리치료 환경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시간에는 모바일 앱 연구에서 선도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임상심리학회 안과 밖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모바일 시대가 심리학자에게 줄 새로운 기회를 경험해 보려 한다.
		1. 임상심리학자를 위한 신대륙, 모바일 월드 (최승원,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소개	2.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의 얼굴인식 및 사회성 증진을 위한 앱개발 (정경미,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 본 연구팀은 자폐성 장애 아동의 얼굴인식과 사회성 증진을 위한 앱을 개발하고 효과성 검증을 목표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R&D 과제(2년: 2015-2017)를 지원받았다. 현재는 앱 개발이 완료되었고, 고기능자폐아동 약 60명을 대상으로 효과성 검증을 진행 중이다. 본 심포지엄에서는 개발된 과제와 효과성 검증 방법을 발표하고, 과제 개발에서 유의점과 고려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이어, 심리치료의 한 형태로 기반을 잡아가고 있는 앱 기반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유용성과 한계에 대해 연구자들과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만들고자 한다.
		3. 클라우드소싱 기반 인지행동치료 앱 'Spring' (김향숙,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 오늘날 정신건강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치료적 접근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 면대면 심리치료는 가용성(availability), 접근성(accessibility) 및 수용성(acceptability)의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시도와 함께 모바일 플랫폼에서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심리치료 어플리케이션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현재 상당 부분의 관련 앱서비스는 정신의학적 혹은 임상심리학적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사용자경험(UX) 디자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아 사용자가 불편해하고 흥미를 느끼지 못하여 이용률이 대체로 저조한 형편이다. 이에 발표자가 소속된 연구팀에서는 면대면 상담치료 방식의 한계를 극복함과 동시에 관련 앱서비스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클라우드소싱 기반 심리치료 앱 Spring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더불어 오늘날의 테크놀로지의 발전이 진단 및 치료,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향후 발전의 방향 및 고려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4. 성인 마음성장 프로그램 토닥토닥 (허지원,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5. 정신과 환자의 증상 평가 및 조절을 위한 앱개발 (조철현, 고려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2일차 심포지엄 (5월 12일 금요일)

시간	강의실	내용
15:30 ~ 17:30	D-Room	제목 S9. 도박중독 회복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의 필요성
		좌장 토론 이민규 (경상대학교 심리학과)
		발표 조현섭 (충신대학교 중독재활상담학과) / 유승훈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남센터) 조현수 (대구마약퇴치운동본부)
		소개 한국사회에서 중독에 대한 이해가 넓고 깊어지면서 중독자의 치료적 접근에 있어 전문적인 개입을 위한 다양한 접근이 되고 있다. 기존의 물질관련 중독에 대한 역사는 그 전통과 경험이 많이 축적되어 있으나, 행위중독에 대한 개입은 그 역사가 길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대표적인 행위중독인 도박중독자의 회복에 있어 전문적인 기관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개입이 너무도 다행스럽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치료적 개입에서 도박중독자들에게 아쉬운 부분이 있다. 기존 알코올과 마약 쪽의 거주치료가 그것이다. 물질중독과 관련하여 두 분야에서는 선구적인 역할을 한 두 기관이 있다. 알코올 분야의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감나무집(남성), 향나무집(여성)이고, 마약 분야에 대구마약퇴치운동본부의 미션홈이 대표적이다. 이 두 분야에서 선구적인 역할에서 이미 그 치료적 효과성은 이미 검증이 되었다. 이에 본 신청자는 도박분야에서도 전문적 치료개입에 있어 거주 치료에 대한 필요성을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과 그 필요의 검증과 현실적인 대안 등을 논하고자 한다.
		알코올 거주치료 시설을 오랜 기간 운영하였던 충신대 조현섭 교수와 마약분야에 10년여 기간을 마약중독자와 생활하면서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던 대구마약퇴치운동본부의 조현수 부본부장을 모셔 거주치료 시설의 운영에 있어 각 중독 분야의 회복자들의 특징과 어려웠던 점을 듣고, 그 경험에서 나온 노하우를 공유하여 도박중독자 거주치료의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E-Room	제목 S10. 융합연구와 임상심리학자의 역할: 사례와 시사점
		사회 장혜인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발표 손진훈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 이장한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신민섭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토론 김지호 (경북대학교 심리학과) / 최윤경 (계명대학교 심리학과)
		소개 1. 임상심리학을 위한 융합기술 개발 (손진훈,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 본 발표에서는 먼저 과학기술의 혁신을 위한 융합기술(주로 인지과학, 정보통신기술, 신경과학과의 융합)에 대한 필요성을 이해하고, 선진국의 융합기술과 국내의 융합기술 정책을 간단히 개관하고자 한다. 임상심리학 장면에서 진단평가, 치료, 예방을 위해 어떠한 과학과 기술이 어떻게 융합하여 혁신적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 낼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추구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본 발표자가 수행해왔던 몇 가지 융합과제(신경과학분야) 개요를 설명하고 이들을 임상장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현재 외국의 임상장면에서 사용되고 있는 치료기술을 예를 들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융합연구와 기술개발을 위해 학회차원에서의 해야 할 융합교육과 융합연구 방안을 제언해보고자 한다.

◆ 2일차 심포지엄 (5월 12일 금요일)

시간	강의실	내용
15:30 ~ 17:30	E-Room	<p>소개</p> <p>2. 임상심리학자로서 융합연구의 시도 (이장한,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 정신병리는 단일 기제가 아닌 심리, 사회, 생리 등 다양한 기제의 복합적 영향에 의해 발생되기 때문에 융합적 연구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발표에서는 임상심리학 분야에서 융합연구의 필요성, 국내외 융합연구의 동향과 함께 최근 프로젝트에 참여한 결과물(가상현실을 통한 공포증, ADHD, 물질중독 증상의 측정 및 치료 연구, 안구움직임과 호르몬 측정을 통한 중독자의 정신생리학적 반응특성 연구, 가상현실로 범죄환경을 구축하고 범죄자 및 허위진술자의 심리적 특징과 신체반응을 뇌파와 웨어러블 아이트래커로 측정한 연구)을 소개하고자 한다. 끝으로, 향후 임상심리학 분야에서의 융합연구의 방향과 임상심리학자의 역할 및 전망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p> <p>3. 주의력문제를 가진 아동용 스마트태블릿 기반 뉴로피드백 훈련 및 토이-로봇 기반 인지능력 증진 프로그램 (신민섭,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인터넷과 웨어러블 스마트기기의 발달과 바이오센서의 소형화 및 고집적화 등 정보통신 기술과 의료기기, 심리평가 및 개입간의 융합이 활발해지면서 언제 어디서나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u-헬스(ubiquitous-health)가 주목받고 있으며, 아동용으로는 국내,외에서 인터넷, 스마트태블릿,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이용한 인지능력 증진 및 행동 관리 프로그램의 개발과 상용화가 증가되는 추세이다. 최근 들어 뉴로피드백(NF)은 ADHD아동에 대한 비-약물치료적 접근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자는 머리밴드형 2채널 뇌파측정기를 블루투스를 통해 스마트태블릿 PC에 연결하여 뇌파를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는 휴대용 뉴로피드백 도구를 개발하고 전산화된 인지훈련 게임을 NF 훈련과 접목시켜 주의력문제가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뉴로피드백 훈련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또한 5-10세 아동용 스마트태블릿 기반 주의력, 기억력, 작업 기억력, 행동억제력 평가도구를 개발한 후, 아동의 흥미와 동기를 높이고자 토이-로봇을 이용한 전산화된 인지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심포지엄에서는 아동용 u-헬스 기기의 개발 및 효과에 대해 생각해보고, 앞으로의 전망과 장점 및 제한점 등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한다.</p>
	F-Room	<p>제목 S11. 숙련된 전문가를 위한 슈퍼비전의 실제 (전문가 자격 취득 후 5년차 이하)</p> <p>발표 김지혜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이임순 (서울정신분석상담연구소)</p> <p>토론 박경순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p> <p>※ 해당 심포지엄은 수강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전문가 자격 취득 이후 5년차 이상인 분들을 대상으로 개설되었습니다. 요건이 맞지 않는 회원분께서 신청하신 경우 자동으로 강의가 변경 될 예정입니다.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p> <p>소개</p> <p>1. Scientist-Practitioner 관점에서 본 슈퍼비전 (김지혜,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가 5년차 이상의 슈퍼바이저가 갖게 되는 장점, 단점 등을 Scientist-Practitioner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슈퍼바이저는 정신병리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 그리고 그에 적합한 평가 도구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경험이 쌓여가면서 자신의 기억과 인상에 기초한 판단이 때로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흡수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데 방해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슈퍼바이저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학회 내에서 좀 더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보고자 한다.</p>

◆ 2일차 심포지엄 (5월 12일 금요일)

시간	강의실	내용
15:30 ~ 17:30	F-Room	<p>소개</p> <p>2. 사고하는 공간으로서의 슈퍼비전 (이임순, 서울정신분석상담연구소) 슈퍼비전은 슈퍼바이저가 내담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생각하는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슈퍼바이저와 협력하는 과정이다. 슈퍼비전은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정서적 재료에 대해 사고하는 공간이 되며, 이런 과정에서 슈퍼바이저와 내담자의 관계가 재현되기도 한다. 슈퍼바이저는 전체 치료과정을 holding, containing해줌으로써 슈퍼바이저의 불안을 감소시키고 치료자로서 자각을 증진시켜줄 수 있다. 심포지엄에서는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저의 관계를 중심으로 슈퍼비전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p> <p>3. 장기 역동 심리 치료 (박경순,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심리 치료에서의 임상적 실재를 다룬다. 내담자를 drop시키지 않고 치료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법들과 이와 관련하여 내담자의 역동을 이해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예를 다루어 본다. 사례 개념화는 환자를 이해하기 위한 초기 구조화 작업일 뿐 아니라, 치료가 종결될 때까지 채워나가는 작업이다. 초기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역동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인 상담을 하는 것은 단기 상담에서 얻을 수 없는 마음 영역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하며, 아울러 치료자로서의 역량을 키워주는 역할을 한다.</p>

◆ 2일차 심포지엄 (5월 12일 금요일) : 구연발표

시간	강의실	내용
10:00 ~ 12:00	G-Room	주제 Oral Presentation I : 정신병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부민감성이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해석편향과 부정적 기억편향의 이중 매개효과검증 발표 : 박정현 (강원대학교 심리학과) 양극성 스펙트럼에서 양극성 성향과 경계선 성격성향의 비교: 정서조절곤란을 중심으로 발표 : 최소연 (경상대학교 심리학과) 불면장애에서의 뇌파의 동시성 발표 : 백초롬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정서적 맥락 처리 능력이 조현병 환자의 지역사회 기능에 미치는 영향: 편집증 증상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발표 : 박기호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주제 Oral Presentation II : 심리치료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뉴로피드백을 이용한 불면증 치료의 새로운 프로토콜 발표 : 전정은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약물 사용에 대한 컴퓨터 기반 인지 편향 수정 프로그램의 효과: 예비 연구 발표 : 박혜령 (강원대학교 심리학과) 외상 후 정서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발표 : 주은희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대인관계적 정서조절 질문지의 신뢰도와 타당도: 한국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발표 : 한진솔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13:15 ~ 15:15	G-Room	주제 Oral Presentation III : 지역사회 정신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원가족 건강성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심리적 안녕감 및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발표 : 박범숙 (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심리학과) 근거기반실천의 국내 보급 방안 발표 : 김은진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지각된 연령주의, 신체적 및 심리사회적 노화의 인식, 우울감 간의 관계 : 남성 베이비부머와 노인 집단의 비교 발표 : 황민영 (마음연구소) 경찰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요인 및 특성에 관한 연구 발표 : 이지영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15:30 ~ 17:30	G-Room	

◆ 3일차 공동교육 (5월 13일 토요일)

시간	강의실	내용
09:00 ~ 10:50	A-Room	제목 E1. 심리치료 : 인지행동치료의 이론과 실제: CBT for ADHD Children & OCD
		강사 신민섭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A-Room	소개 CBT는 성인과 아동 모두에서 널리 이용되는 근거기반 치료적 접근이며, 1980년대 이후에 많은 연구들이 우울장애, 양극성 장애, 조현병, 불안장애, 성격장애 등에 CBT가 치료 효과가 있음을 보고해왔다. 특히 아동대상 치료 기법 중에서 CBT는 행동수정 다음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연구 되어 왔다.
		소개 본 강의에서는 먼저 CBT의 핵심특성 및 핵심개념과 아동청소년 CBT와 성인 CBT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본 후, ADHD 아동용 CBT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CBT에 대한 소개와 주요 CBT 기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OCD 치료에서 약물치료만큼, 혹은 그 이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강박증 CBT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동영상 통해 OCT CBT의 인지적, 행동적 기법에 대해 익히고자 한다.
	B-Room	제목 E2. 신경심리평가 : 아동기 주의력 결핍장애와 신경심리평가
		강사 배대석 (영남대학교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B-Room	소개 아동의 주의력 수준은 정상 발달과정에서도 다양한 원인에 의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어떤 병리적 원인에 의해서도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부터 심각한 손상 수준에 까지 그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주의력 수준을 평가하는 검사 도구는 수백여 가지 달할 정도로 그 종류가 다양하며, 이 이전에 '주의'에 대한 개념 또한 매우 다양하다.
		소개 이러한 다양함과 어쩌면 모호한 개념을 바탕으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혹은 아동기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의력 결핍 현상을 측정하고, 평가하며,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 중의 하나일 수 있다. 이에 본 강의에서는 임상장면에서, 아동의 주의력 수준 혹은 장애에 대한 검사의 선택과 실시, 그리고 해석이전에 알아두어야 할 부분과 검사결과의 해석과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부분을 간추려 보고자 한다.
	C-Room	제목 E3. 장애인단평가: 장애등급판정 기준 제대로 알고 심리평가 하기
		강사 이원혜 (국립정신건강센터 심리건강과)
	C-Room	소개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장애등록이 가능한 정신적 장애에는 발달장애(지적장애, 자폐성장애)와 정신장애(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 우울 장애)가 포함된다. 본 강의는 이러한 정신적 장애의 장애등급 판정을 목적으로 심리평가가 의뢰되는 경우 임상심리학자가 숙지해야할 주요 지침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2015년 개정된 장애등급 판정 기준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다. 둘째, 장애등급 판정의 객관적 근거로서 심리평가를 활용하기 위해 심리평가 도구 선택, 평가 실시 및 결과 제공 등에 있어 고려할 점, 현장에서 부딪히는 어려움과 대처방안 등을 다룰 것이다.

◆ 3일차 공동교육 (5월 13일 토요일)

시간	강의실	내용
11:00 ~ 12:50	A-Room	제목 E4. 윤리교육 : 임상심리학자가 지켜야 할 윤리와 책임
		강사 이종선 (강원대학교 심리학과)
		※ 해당 강의는 전문회원 및 수련생 윤리교육으로 인정됩니다.
	A-Room	소개 본 강의에서는 임상, 연구 및 교육 장면에서 임상심리학자로 활동하면서 지켜나가야 할 윤리와 책임에 대해 개관하고자 한다. 연구 및 교육장면을 넘어서서 임상심리학자는 심리치료 또는 평가 장면에서 내담자 및 수련생들과의 관계로 인해 지켜야 할 윤리적 규범과 책임이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이번 윤리 교육을 통해 윤리규정 시행 지침, 연구 윤리, 교육 및 수련관련 윤리, 평가 관련 윤리 및 치료 관련 윤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목 E5. 심리평가 및 보고서 작성법 : 수련생을 위한 심리평가 및 보고서 작성법
		강사 한영경 (서울심리지원 북부센터)
	B-Room	소개 수련과정에 있는 초심자들은 심리검사에서 나타나는 세부적인 자료들에 대한 지식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통합하여 하나의 보고서로 작성해 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이로 인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시간을 통해 심리평가 및 보고서 작성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기회를 가져 보고자 한다.
		제목 E6. 심리학자를 위한 의학강의
		강사 문은수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교실)
	C-Room	소개 본 발표에서는 의학적 패러다임 안에서 정신의학의 위상을 소개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생물정신사회적 모델(Biopsychosocial model)을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신경생물학적 변화가 심리적 증상으로 발현되는 과정을 최신연구결과들을 토대로 재구성해 보고, 신체질환에 의해 유발된 정신질환들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아울러 정신약물학에 의한 증상조절과 실제 약물치료에서 일어나는 치료 과정의 원리들을 소개하고, 뿐만 아니라 신경생물학적 연구와 정신약물학적 연구결과들이 더욱 축적될 때 도래하게 될 미래의 상황을 유추해보고자 한다.

◆ 3일차 공동교육 (5월 13일 토요일) : 사례회의

시간	강의실	내용
09:00 ~ 10:50	D-Room	제목 사례회의 1. 외출을 두려워하는 우울하고 무기력한 19세 여성
		발표 오지희 (제주대학교병원)
		이론 김주용 (전남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토론 이성애 (경희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신정원 (심리상담센터 아낌)
		소개 이론강의. 우울증과 행동활성화치료(Treating Depression with Behavior Activation Therapy) (김주용, 전남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본 교육에서는 우울증의 다양한 원인과 증상에 대해 알아보고, 우울증의 심리치료 기법을 소개한다. 특히 사례발표자의 주요 심리치료기법인 행동활성화치료 (Behavioral Activation)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1:00 ~ 12:50	D-Room	제목 사례회의 2.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으려 하는 사회불안장애/우울증 남성
		발표 임민경 (경희대학교병원)
		이론 이태준 (행복생활심리상담센터)
		토론 남보라 (삼성디스플레이 기흥열린상담센터) 성기혜 (차(CHA)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
		소개 이론강의. 인지행동치료의 적용 (이태준, 행복생활심리상담센터) 만성적 우울감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과 부적응을 호소하는 내담자에게 인지행동치료 개입을 위한 이론을 소개한다.



기타안내

인근 숙박 업체

숙박업체 명	객실 예약문의	홈페이지	CECO와의 거리 (승용차)
풀만 엠베서더 창원	055-600-0723	www.thecity7pullman.com	도보3분 (3층 연결다리)
엠스테이	1522-6300	http://www.mstaychangwon.co.kr/	10분 (의창구 상남동)
창원호텔	055-283-5551	www.changwonhotel.co.kr	10분 (성산구 중앙동)
호텔인터내셔널	055-281-1001	www.hotelinternational.co.kr	10분(성산구 중앙동)
호텔 사보이	055-247-4455	-	15분 (마산 합포구 산호동)
클라운 AT 호텔	055-266-3600	http://www.athotel.kr/	10분 (성산구 중앙동)
호텔 에비뉴	055-263-7200	-	10분 (의창구 용호동)
솔리움 호텔	055-264-9171~2	-	10분 (성산구 중앙동)
아리랑관광호텔	055-294-2211	http://www.hotelarirang.co.kr/	30분 (마산합포구 석전동)
프라하 호텔	055-288-1112	http://praha-hotel.co.kr/	10분 (의창구 팔용동)

- * 창원 컨벤션센터 인근 숙박업체를 안내 드리니, 가격 및 숙박 문의는 해당 업체에 개별적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그 밖의 숙박업소는 창원 컨벤션센터 홈페이지(http://www.ceco.co.kr/traffic/traffic_07_1.asp)를 참고 바랍니다.

인근 음식점

상호명	위치	연락처	분류
풀만엠배서더창원 블루핀	도보3분 (풀만엠배서더 내 위치)	055-600-0803	음식점>뷔페
마당쇠보쌈 시티세븐점	도보5분 (더시티세븐몰 내 위치)	055-600-3773	한식>보쌈
세븐스프링스 창원점	도보 10분 (더시티세븐몰 내 위치)	055-600-5060	음식점>패밀리레스토랑
채선당 창원시티세븐점	도보 10분 (더시티세븐몰 내 위치)	055-600-5080	일식>샤브샤브
바르미샤브샤브칼국수 더시티세븐점	도보 10분 (더시티세븐몰 내 위치)	055-710-6577	일식>샤브샤브
사보텐 창원시티세븐몰점	도보 10분 (더시티세븐몰 1층 내 위치)	055-600-5570	일식>돈가스
얌차이나	도보 10분 (더시티세븐몰 5층 내 위치)	055-600-5412	중식>중식당
푸와차이나 시티세븐점	도보 10분 (더시티세븐몰 1층 내 위치)	055-600-5818	중식>중식당
원조쌈밥집 창원더시티세븐점	도보 10분 (더시티세븐몰 1층 내 위치)	055-600-5240	한식>쌈밥
새마을식당 창원더시티세븐점	도보 10분 (더시티세븐몰 1층 내 위치)	055-600-5239	한식>돼지고기구이
해모수횃집	차량 10분 (창원 상남동)	055-274-3399	일식>회
박해운 행복한 외식명가	차량 10분 (창원 상남동)	055-262-0022	한식>한정식
백만장자오리	차량 10분 (창원 상남동)	055-262-5292	한식>육류,고기요리
홈피제리아 상남점	차량 10분 (창원 상남동)	055-263-4999	음식점>패밀리레스토랑
짬신매운갈비찜 상남점	차량 10분 (창원 상남동)	070-4418-6799	한식>육류,고기요리
너 내동료가 돼라	차량 10분 (창원 상남동)	055-281-1829	한식>육류,고기요리
연양각식당	차량 10분 (창원 용호동)	055-266-8050	한식>육류,고기요리

* 창원 컨벤션센터 인근 음식점을 안내 드리니, 가격 및 예약문의는 해당 업체에 개별 문의 바랍니다.

관광안내

■ 창원의집 → 창원 과학체험관 → 성산패총 → 성주사



■ 창원의집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에 있는 전통가옥이다. 옛 선비의 모습이나 안방마님, 훈장 등 여러 인물이 밀랍으로 만들어져 생생하게 당시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고, 무료 전통혼례식장으로 개방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 위치: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16번길 59 창원의집

■ 창원과학체험관

경남의 대표 과학체험관이 창원과학체험관은 전시품의 90% 이상이 체험, 참여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창원과학체험관만의 특색있는 아이টে을 구비하고 있다.

- 위치: 창원시 의창구 충훈로 72번길 16
- 연락처: 055-267-2676

■ 창원 성산패총

창원공단 중심부에 위치한 성산패총은 공단부지조성이 한창이던 1974년 문화재관리국에서 주관하여 긴급발굴조사되어 초기철기시대의 대규모 패총과 삼국시대의 성곽이 확인되었다. 막대한 양의 각종 토기류, 철기류 등이 출토되어 당시의 생활상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 위치: 창원시 성산구 성산패총로 137
- 연락처: 055-282-7270

■ 성주사

경남 창원시 성산구 천선동 소재. 신라 흥덕왕 10년(835) 무염국사가 창건하였다고 전한다.

- 위치: 창원시 성산구 공절길 191
- 연락처: 055-262-0108

관광안내

■ 주남저수지 → 우포늪



■ 주남저수지

창원시 의창구 동읍에 위치한 주남저수지는 철새들이 살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주남저수지에는 10월 중순부터 큰기러기, 쇠기러기, 청둥오리, 쇠오리, 고방오리, 흰죽지, 고니, 큰고니 등이 찾아온다.

- 위치: 창원시 의창구 동읍 월잠리 306-16
- 연락처: 055-225-2798

■ 우포늪

우포늪은 낙동강 지류인 토평천 유역에 있으며, 중생대 백악기의 신라 역암층으로서 창녕군 대합면 주매리와 이방면 안리, 유어면 대대리, 세진리에 걸쳐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자연늪지로 수많은 물풀들이 공존하며 자라나고 있다.

- 위치: 창녕군 유어면 대대리
- 연락처: 055-530-1531

투어 안내

▶ 시간	5월 11일 (목) 16:30~19:00 창원컨벤션센터CECO 출발 → 주남저수지 탐방 → 상남동
▶ 장소	주남저수지 / 상남동
▶ 대상	한국임상심리학회 2017 봄 학술대회 참가자
▶ 이용료	무료 (선착순 50명 접수)
▶ 차량	창원시티투어 버스
▶ 신청방법	참가양식 작성 후 E-mail(kcpa2@kcp.or.kr)로 신청 ※ 참가양식은 공지사항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관광안내

■ 창원 가로수길 → 창원 창동예술촌



창원 가로수길



창원 창동예술촌

■ 창원 가로수길

창원 시가지의 메타세콰이아는 1982년 총혼로를 시작으로 용호로(옛도지사관사 일원) 창원대로 등에 식재한 가로수로서 당시 허허벌판에 크고 빨리 자랄 수 있는 조경수를 선정하여 식재한 것으로 국내 최초의 계획도시로 신속한 녹화가 필요한 창원시에 제격이었으며 현재는 창원시의 명품 가로수로 자리잡고 있다.

조용하고 이쁜 동네에 이탈리아 레스토랑이 생긴 후 몇 년 지나지 않아 창원에서 가장 유명한 카페거리가 되었다. 메타세콰이아의 성장과 함께 창원용지로 일원은 용지호수로 연결되는 도로변에 자발적으로 카페가 속속 생겨나면서 찾는 이가 많아져 메타세콰이아 가로수와 함께 카페거리로 창원의 명소가 되었다.

- 위치: 경남 창원시 의창구 외동반림로248번길 31

■ 창원 창동예술촌

창원 창동예술촌은 옛마산 원도심권 (창동/오동동권역)의 잃어버린 상권기능을 재생시키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으로, 크게 3개의 메인 테마(문신예술골목 / 마산예술흔적골목 / 에콜드창동골목)로 구성되었고 현재 총 50개 입주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12개 시설에서 체험공방을 운영하여 방문객들에게 현장 체험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갤러리 및 아트샵과 추억명소들이 배치되어있다.

- 위치: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서6길 24
- 홈페이지: <http://www.changdongart.com>
- 연락처: 055-222-2155

관광안내

경남 컨벤션 관광상품 이용안내

학술대회 참석 이후 경남지역 관광을 즐기고 싶은 분들께 저렴한 금액으로 이용 가능한 [경남컨벤션뷰로 관광상품]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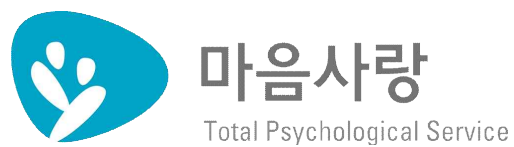
- 홈페이지: <http://www.kn-tour.com/> or 검색창 '경남테마여행사'
- 고객센터: 055)285-2077

① 메인 홈페이지(www.kn-tour.com or 검색창 '경남테마여행사') 국내여행 클릭!

② 국내여행 중 경남관광상품 클릭!

③ 상시여행, 계절여행(봄,여름) 희망 카테고리 클릭!

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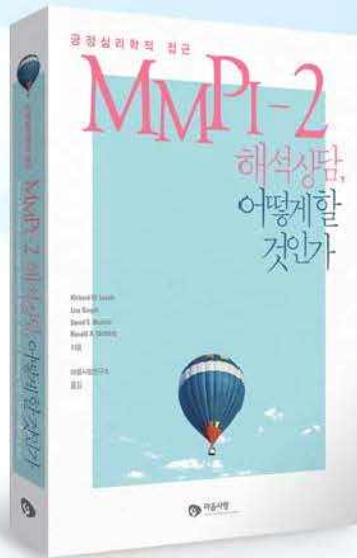
한국임상심리학회 2017년 봄 학술대회 준비 위원회

회장	박중규 (대구대학교 재활심리학과)	
학술부회장	정경미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학술이사	장혜인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총무이사	양재원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교육이사	최승원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이사	김정호 (조선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정신보건이사	배대석 (영남대학교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재무이사	심은정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학술위원	권호인 (전주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박지선 (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배금예 (경북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종선 (강원대학교 심리학과)
	조성근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진주희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최성진 (부산가톨릭의료원 메리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한은경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광주센터)
사무국	수석팀장 모준영 (총괄)	1팀장 홍자경 (수련)
	2팀장 강미선 (학술, 교육)	3팀장 최선경 (입회, 편집, 홍보)

긍정심리학적 접근

MMPI-2 해석 상담, 어떻게 할 것인가

Therapeutic Feedback with the MMPI-2: A Positive Psychology Approach



저자 Richard W. Levak
Liza Siegel
David S. Nichols
Ronald A. Stolberg

역자 마음사랑연구소

정가 25,000원 (452쪽)

판매처 마음사랑 홈페이지

<http://www.maumsarang.kr>

이 책은 MMPI-2의 성격 및 정신병리에 대한 정보를 **긍정심리학적 관점**에서 내담자 중심의 공감적인 언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MMPI-2를 통해 내담자를 보다 잘 이해하고자 하는 임상가뿐 아니라 **협력적인 피드백** 과정을 통해 깊이 있게 소통하고자 하는 상담가 모두에게 유용하리라 기대됩니다.

이 책의 구성

MMPI-2 주요 척도 및 코드 타입 별

- ☑ 주호소, 사고, 정서, 성격 및 행동 특성, 강점
- ☑ 치료자를 위한 지침
- ☑ 생활방식 및 성장배경
- ☑ 다른 척도와의 관련성
- ☑ 치료적 제안 및 고려사항
- ☑ 정상범위 프로파일의 피드백($50 \leq T$ 점수 ≤ 65)
- ☑ 상승한 프로파일의 피드백(T 점수 >65)
- ☑ 살아온 과정에 대한 피드백
- ☑ 내담자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

“MMPI-2 피드백은 내담자와의 공감 어린 소통이다.”

4-9/9-4 코드타입

당신의 어린 시절을 치료자와 함께 탐색하면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무감각하게 만들어야’ 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치료자의 도움을 받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체험’해 보세요. 스스로의 감정을 잘 식별하게 될수록 관계에 대처하는 데 더욱 능숙해지며 남들에게 더욱 친밀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 본문 328쪽 -